

나주금천중, 자유학년제 진로 연계 프로그램 행사 실시

다양한 직업인들 학교 찾아 학생들과 만남 가져 학생마다 진로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돼

나주금천중학교에서 10월 8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주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2021년 자유학년제 진로 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다양한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실시했다.

‘우리들의 변호사’ 책을 쓴 박준영 변호사, 유투버 썬지, 방송인 최민임,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아로, 큐레이터 백종욱, ‘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의 작가 임승수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나주금천중은 ‘자유학년제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리 직업인들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업인과 관련된 독서를 미리 함으로써 스스로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마다 진로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진로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일방적 강의가 아닌 저자와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는 대화형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미리 저자의 책을 읽고 진로를 탐색해 본 후

실제로 저자를 만나 책을 읽고 궁금했던 내용을 작가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박준영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세계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과 극복 과정,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방법 등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에게 도전 의식과 의지를 불려줄 기회를 들려주었다.

이번 만남에서 1학년 최서아 학생은 “어떤 직업을 갖든 직업인으로서 객관적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다.

문광일 교장은 8일 “이번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진로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고흥녹동고등학교, 사랑의 목도리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최근 녹동고등학교에서 통합학급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사랑의 목도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녹동고등학교 학부모회는 평소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학급의 학생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자 학부모 통합학급학생 동행 프로그램을 계획

통합학급학생·학부모·교원 참여

하고, 고흥교육지원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녹동고 학부모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합쳐 10주간에 걸쳐 ‘따뜻한 사랑의 목도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야간에 학부모 6명과 통합학급 학생 4명, 교원 4명이 통합학급실에 모여 목도리 뜨개질을 한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한마음으로 뜨개질을 배워가며 엄마와 딸처럼 웃음꽃이 그칠 줄 모른다.

바리스타 자격 취득 과정을 밟고 있는 3학년 수림이는 커피 주문을 받아

향기로운 커피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대접한다. 수림이는 커피 전달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환한 웃음을 더하여 뜨개질 수업시간 내내 행복바이러스가 넘친다.

학부모회와 통합학급학생들은 목도리에 사랑을 담아 정성스럽게 한뼘 한뼘 따뜻한 사랑의 목도리를 짜서 도양읍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이웃과 홀로 생활하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동부교육청, 10월 ‘디딤돌’ 연수 운영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7~8일 이틀 동안 학교행정 지원을 위한 10월 ‘디딤돌’ 연수를 운영했다.

1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0월 ‘디딤돌’ 연수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알기’ 주제

공립학교 회계규칙 알기’를 주제로 운영됐다.

이번 과정은 3년 이하 경력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됐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디딤돌’ 연수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광주동산초 김주승 행정실장을 초빙했다. 김주승 행정실장은 회계의 기본 용어, 학교회계 제도의 기본 원리 등

연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연수 내용에 현장성을 더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디딤돌’ 연수가 회계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길라잡이가 됐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학교회계가 문제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함평교육청, 제3차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협의회

12명 대상 진행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Wee센터는 7일 관내 전문상담(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제3차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Wee센터와 Wee클래스 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2학기 상담주간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 함평하리고등학교

교 강○○교사가 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고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관내 모든 학교별로 상담주간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협의회를 하였다.

Wee클래스 협의회에 참여한 교원들은 “Wee센터와 Wee클래스 간 협의와 학교별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광양교육청, 광양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준(안) 자문

광양교육지원청은 8일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제8회 광양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통폐합 시 의견수렴 범위 ▶유치원 학급 편성 최소 원아수 기준 ▶복식학급

편성 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광양중·광양여중 남녀공학 개편 및 골약초 이설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방향과 일정 등 광양교육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중혁 교육장은 “광양교육참여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과 소통의

장으로써 광양교육의 한 축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양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위원들의 참여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완표 위원장은 “광양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자리를 가질 수 있어 언제나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